


돌봄-나의 살아감과 너의 살아감

인하대
황순찬



“희망은 드러나야 한다.
희망은 느낄 수 있어야 한다.
희망은 살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모두는 ‘희망’으로 살아야한다”

마리안느& 마가렛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CXDiF2P5ih0>

- care는 보살핌, 염려, 불안, 슬픔, 비탄, 곤란을 뜻하는 고대영어 caru에서 연원. 살아있는 것의 결핍과 취약성을 온전히 돌본다는 의미(동시에 어렵고 소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음)

돌봄의 어원

- 모든 인간은 의존적
- 인간은 필연적으로 상호의존적 관계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존재(취약성과 의존은 인간의 연속적이고 본질적인 조건)
- 인간은 설령 독립적이고 생산적이지 못하더라도, 심지어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고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 하더라도 **누군가의 돌봄을 받는 관계에 놓여 있다면**, 그는 온전한 인간(그를 인간으로 만드는 것은 그의 독립성이나 생산성이 아니라 그가 맺고 있는 타인과의 관계)
- 타인의 고유성을 이해하는 깊은 공감의 필수 불가결

돌봄의 전제

- 자발적 돌봄(spontaneous care): 사마리아인의 선행과 같이 타인이 필요로 하는 것을 돌보는 것
- 필수 돌봄(necessary care):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이에게 제공하는 돌봄. 아픈 사람을 간호하고 치료하는 일. 아기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
- 개인 서비스(personal service): 자신이 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대신해서 제공해 주는 형태. 대개 서비스의 대가는 경제적 보상. cf. 아내가 집 안 청소하기를 바라는 남편은 아내가 자신에게 개인 서비스를 해주기를 원하는 것.

(Kari Waerness)

돌봄의 형태

- 돌보는 자(carer)와 돌봄을 받는 자(cared-for)가 서로 대면하여 상호작용하는 것
- 누군가 돌봄이 필요할 때 이를 감지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있음을 그 사람의 반응에서 확인하는 것/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충족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덜 가치 있는 존재로 대우받지 않는 것
- 단순히 불쌍한 사람을 볼 때 나타나는 일시적이고 반사적인 동정적인 돌봄과는 다름. **반사적인 돌봄은 제공자 중심. 이타적인 돌봄은 수혜자가 더 이상 돌봄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까지 끝까지 지속적으로 보살피주는 책임감 있는 실천을 의미**
- 한 개인의 노력 뿐 아니라 경제적, 사회제도적, 인력적 지원을 요구하는 것(a deeper sympathy. 깊은 공감에 바탕 한 돌봄은 사회제도와 구조 자체를 향하게 됨. 즉 인간존재를 억압하는 주류 담론이나 현재의 제도적 구조와 동일시 거부)

돌봄 행위

- 돌봄은 인간을 그의 본질로 되돌려 놓아, 진정으로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것
- 현존재는 돌봄(sorge)을 근간으로 한다. 존재론적 돌봄은 근원적 돌봄(생물학적 조건)과 정체성 구성 돌봄(인간은 자기 돌봄-자신의 터전에 거주하면서 세상과 참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방식에 의해 구성). 결국 존재론적 돌봄은 신체적, 물질적 차원만이 아니라 정체성 손상시에도 필요한 사회 심리적인 측면까지 포함하는 것.

Heidegger

- 타자의 윤리-자유는 자신이 아니라 타자에 의해 발생한 책임을, 타자를 위한 책임으로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윤리적 주체는 자기 밖으로부터 타자의 부름을 받고 응답해야 할 책임을 질 때 비로소 그 의미를 지님

- [취약한] 타자의 얼굴에서 발해지는 책임에서 도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자유다. 여기서 책임을 받아들임, 즉 책임의 수용은 내가 ‘타자를 위한 존재’가 되는 것(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고통받는 타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되어진 것)

Levinas

- 정상과 비정상의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야(ex. 장애인을 비인간화 하지 않고 그들의 고유한 인간성을 인정하며,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억압되고 비인간화 된 장애인의 인격을 되찾으려는 노력)
- 진심 어린 돌봄은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진정한 돌봄의 원천은 공감적 상상력)
- 돌보는 자와 돌봄을 받는 자 사이의 관계는 일방적으로 요구와 희생이 강요되는 관계가 아닌 상호 긍정적인 발전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윤리적 관계
- 돌봄에서의 의존관계는 자유주의적 호혜관계가 아니라 불평등하고 비대칭적인 권력관계이나 이 권력관계는 지배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 당위성을 내포하고 있는 권력관계(현실에서는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비대칭적 권력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음)

상호의존관계의 돌봄 철학

•공감(sympathy)이란 다른 사람의 느낌을 상상적으로 재현하는 것이며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무엇인가 실천하도록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Philip Mercer). 겉으로 보이는 행동 너머를 볼 수 있는 능력이며 돌봄을 받는 사람의 관점에서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Mary Townsend)

•공감적 상상력에 대해 부연하면, 상상하는 주체는 공감적 직관을 통해서 자신과 대상 사이에 놓인 장벽을 넘어설 수 있으며, 대상을 공감함으로써 대상과 순간적이지만 완전한 일체감을 이룬다. 또한 주체는 공감적 동일시를 통해서 대상이 지닌 고유한 특성과 궁극적 실체를 인지하는데, 이는 상상력의 도움 없이 이성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다(Walter Jackson Bate).

공감/공감적 상상력

- 돌봄 제공자는 의존인을 돌봐 줄 책임이 있다(1차 의존관계).
- 사회는 돌봄 제공자의 노동과 관심이 착취되지 않은 채 돌봄 제공자가 의존인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돌봄 제공자의 안녕을 보살피기 위한 방법을 찾는다(2차 의존관계).
- 돌봄 제공자가 보호받을 때, 돌봄 제공자는 의존인을 안녕을 우위에 두게 된다.**
- 돌봄 제공자가 의존자가 되는 2차 의존의 관계에서 돌봄 제공자를 돌보는 돌라는 보다 큰 사회의 얹혀 있는 상호의존관계를 조직화 하는 제3의 존재인 조력자, 즉 국가.
- 이 국가(조력자)의 사회적 책임, 즉 돌봄 제공자에게 주로 경제적, 물질적 지원을 해야 하는 국가의 정치적 의무를 규정하는 **공공윤리의 원칙**.
- 돌봄 제공자와 의존자사이의 1차 의존관계를 공적 영역으로 호출하고, 우리사회가 의존자를 돌볼 능력을 지원하는 협력사회로 변화할 때 절대적 의존자도 사회의 일부로 통합.

(Eva Feder Kittay)

둘리아(dulia)의 원칙

고대 그리스에서 산모를 돌보는 도우미를 일컫는 ‘돌라’(doula)에서 파생한 ‘둘리아’(doulia). 돌라는 직접 아이를 돌보기보다는 산모가 아이에게 진정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주체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산모를 도와주는 역할 수행. 키테이는 시장 자유주의가 내세우는 개인 간 ‘쌍무적’ 관계 다시 말해, 양자 간 ‘합의된’ 대가를 주고받아야 한다는 주장으로부터 벗어나 어떠한 ‘조건 없이’ 서로가 돌봄을 주고받으며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가야 함을 주장. 우리 모두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존재.

출처: 돌봄: 사랑의 노동 (Love's Labor: Essays on Women, Equality, and Dependency,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1999)

doulia의 유래

- 공감(sympathy), 감정이입(empathy), 감수성(sensitivity), 응답성(responsiveness) 같은 **감정에 중점** (돌봄 대상자의 필요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합리적 인식이나 객관적 분석보다는 수용적 직관이나 감정 강조)
-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자율성을 증진하는 것(물리적, 심리적, 사회적 선결조건에 더 주목할 것을 요구. **충분한 자원이 없는 사람은 자율적인 선택을 할 수 없음**. 빈곤, 장애, 차별의 본질도 유사한 맥락. 자율성은 사회관계에서 행사될 수밖에 없음)
- 돌봄 관계에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요청이 **일반적인 (도덕적) 판단기준과 상충하더라도 그 요청이 유의미하고 타당한 것일 수 있음을 인정**
- 타인에 대한 의존과 의존관계를 인정하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취약성에 대한 도덕적 반응**에 기초한 것이 돌봄 윤리

기존 도덕이론과 돌봄 윤리의 차이

- 전통적인 의미의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재개념화(의존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바탕으로 어떤 사적영역이 나 관계가 아닌 공공 사회라는 확장된 영역에서 사회정의를 지키기 위한 윤리 원칙으로서 돌봄 윤리. 돌봄은 사적인 삶이 아닌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
- 돌봄 윤리가 생각하는 도덕적 자아는 타인을 투영하는 자아로, **다른 사람의 필요가 식별되는 자아, 자신의 필요를 알고 있지만 타인의 필요를 우선적으로 간주하는 자아**(자신의 필요 때문에 누군가에 대한 돌봄의 응답을 피하거나 차단시키지 않는 자아로서 돌봄 제공자에 대해서는 자신의 신원을 명확하게 하는 자기규제의 이념으로 작용)
- 내게 의존하는 사람의 필요를 보살피고, 그들의 필요에 응답하면서 나 자신도 좋은 돌봄을 받고 나의 필요도 반영되려면, **타인에 대한 나의 책임은 무엇인가?를 계속 성찰하고 묻는 방식**

기존 도덕이론과 돌봄 윤리의 차이

- 감정과 이성의 이분법을 극복하고, 감정을 사회 통합의 새로운 원리로 삼음(M. Nussbaum)
-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남성의 윤리와 수평적이고 관계적인 여성윤리를 대립시키면서 전자와 후자의 공존을 강조(C. Gilligan)
- 돌봄을 가정으로부터 정치적 공론장의 영역으로 까지 확장 시켜, 돌봄 공동체 또는 돌봄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요구(E. F. Kittay; J. C. Tronto)

돌봄 이론-주요논의

- 인간들 각자는 ‘관계 안에서’(in relationship) 존재
- 모든 인간은 각자가 처한 상황과 맥락에 따라 그 내용과 강도를 달리할 뿐, 취약하고 허약한 존재
- 모든 인간은 한 번쯤 돌봄의 수혜자이자 제공자가 되기 때문에 인간을 자기 완결적 존재, 자족적 존재라는 종래의 철학적 관점은 맞지 않음(각각의 개인이 처한 삶의 다양한 곤경들을 고려하지 못함)
- 기존의 철학적 관점이 이성 중심적이고 합리적인 남성주체에 초점을 두고 사회정의의 윤리나 공동체 이론을 설계해 왔음을 비판
- 돌봄 필요성은 모든 인간이 기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

돌봄 이론-공동주장

- 돌봄 결핍과 민주주의 결핍이 서로를 충족시키기 위해 결합한 것. 민주주의는 그동안 시민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에 무심했다는 반성 위에 돌봄과 결합을 시도(시민들의 삶에 더 다가가면 그만큼 더 민주주의적일 수 있다는 생각).
- 돌봄의 책임을 분담하고 시민들이 이런 책임 분담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 대개 남성은 무임승차하고 여성에게만 일방적으로 강요된 돌봄 책임을 공동의 책임으로 변화시키는 일(비민주주의적인 돌봄 면제권을 철폐하는 것)
- 개인이 원하는 삶의 방식을 전적으로 희생하고 혈연가족에게 모든 정서적, 물질 지원을 투하하게 만드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동체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가족을 통해서만이 아닌 사회적 방식으로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존할 수 있는 다양한 삶의 방식들을 구현해 나가는 것
- 함께 돌봄, 민주적 돌봄이 경계해야 할 위험한 증후는 돌봄의 시장화(돌봄의 문제를 가장 간단하고 반민주적인 방법으로 변질시키는 부정적 징후)

돌봄 이론-돌봄 민주주의

돌봄 민주주의는 돌봄 ‘중심’의 사회와 정치를 실현하자는 주장. 여기에는 대대적인 가치의 재해석이 요구됨. 이제 ‘좋은 삶’의 정의는 “돌봄 가득한(care-full) 삶을 사는 것”이며 ‘자유’의 의미는 “자유로이 돌보는” 것이고 ‘평등’은 “잘 돌봄 받고 또 돌봄 관계에 참여할 평등한 기회”를 뜻함. 또한 “경제생활의 목표는 돌봄을 지원하는 것”이고 “생산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가능한 한 잘 산다는(즉 돌봄 가득한 삶을 산다는) 목적을 위한 수단”(Tronto). ↔ 현재 자본주의에 속박된 삶과는 큰 차이가 있음. 자본주의는 축적을 위한 축적이 이루어지는 확대재생산 체제이고 그것이 인간에게 해롭다고 하더라도 이윤추구를 위한 재생산을 무한 반복하게 됨(bad infinity).

돌봄 이론-돌봄 민주주의

- 신체구속, 방임 및 학대를 특징으로 하는 감금적 돌봄(custodial care)
-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특정 개인을 완벽하게 장악(통제)하고자 하는 것은 돌봄이 아니라 차별
- 대인적 관계에서의 상호작용이라는 돌봄의 특징은 돌봄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공간을 ‘두 사람으로 구성된 관계’ 속으로 축소시켜 버릴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돌봄 제공자가 사랑이나 도덕적 책임감이 없다면 학대의 위험성 발생 가능). 결국 사회적인 것이 개인적인 것으로 전환되는 결과 초래.
- 중층의 돌봄 관계에서 2차적 의존연결망이 부재할 때, ‘함께 돌봄’(care with)이라는 돌봄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서 돌봄 제공자는 원치 않는 관계의 덫에 갇힐 수밖에 없음
- 돌봄 의존과 돌봄 욕구를 낙인 찍고 주변화(인간을 비의존적, 독립적, 자율적 인간으로 상정하고 그러한 정상성에 매몰될 때 이러한 왜곡이 발생)
- 이와 반대로 취약성과 의존성을 과도하게 강조한 나머지 자율성과 개별성을 향한 인간의 욕구(가능한 한 독립적인 개인하고자 하는 추구와 열망)를 반(反)돌봄적 행위로 보려는 태도

돌봄의 왜곡

- 동일성에 기초한 평등(이미 배제와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에게 똑같이 출발선에 서게 만드는 식의 동일성)은 동일성으로 정당화되는 폭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ex.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다는 식. 장애는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다는 식)
- 돌봄 수요의 증가로 점차 상업화된 서비스 형태로 변질. 상업화된 돌봄 서비스는 돌봄의 본질을 상실하고 이윤추구의 도구로 전락. 대규모 수용시설, 요양시설이 저임금 노동, 질이 보장되지 않는 복지로 전락. 개인은 사라지고 집단만 남게 되고 인권침해의 온상이 됨. 이런 상황에서 맞춤형 돌봄 시스템 개발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움(서비스 품질교육, 인권교육 등으로 해결되기 어려움. 정당한 경제적 보상이 선결되어야).
- 돌봄을 단순히 노동력의 문제로 생각하고 이를 기계로 대체하려는 움직임들
- 돌봄 떠넘기기의 연쇄-글로벌 돌봄 사슬(global chain of care). 자기보다 가난한 누군가에게 가족과 공동체의 일을 떠맡기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게 된 현시대의 상황을 ‘글로벌 돌봄 사슬’로 표현(Rhacel Salazar Parrenas)

돌봄의 왜곡

- 인간 존엄성, 자존감과 연결된 돌봄. ex.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음식. But 던져주는 음식을 먹는 것과 정중하게 제공된 음식을 먹는 것의 차이는 그것을 먹어야 하는 사람에게는 먹는 것 그 자체보다 중요할 수 있음.
- 자존을 위협하지 않고 자존을 고양하는 방식 필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돌봄은 인간적 손길 대신 인공 지능이나 로봇기술에 맡겨질 수 있음
- 돌봄 노동 과정에서 생긴 부담이나 불평등한 처우로 돌봄 자체가 손상되고 심리적 불평등 유발. 일과 가정의 양립, 노부모와 아이에 대한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돌봄 노동자의 지위와 임금은 사회적 제물로 강요되는 상황 발생
- 권력 구조에서 낮은 지위를 갖는 가정 구성원에게 돌봄 부담이 집중되고, 그 희생을 디딤돌로 누군가는 성공적 커리어를 달성.

돌봄 관계에서 파생되는 자존, 불평등 문제

- 비정규직의 한계를 알면서도 부득불 베이비시터로 일하게 된 고모
- '숙모'라 불리는 50대 돌봄 노동자
- 돌봄 속성상 가족 간 애착과 유사한 관계
- 사회(시장)에서 저임금으로 여성의 돌봄을 사려는 상황(안팎으로 돌봄의 연속 위에 있는 여성)
- 약점으로 작용하는 '숙모'들의 듀얼 멤버십(유사가족이라는 착각을 일으키지만 손쉬운 해고가 가능한 비정규직)
- 가족이라는 관계의 덧에 걸림 돌봄 노동

출처: 박민정의 「숙모들」(《문학의오늘》, 2017년 겨울호)

돌봄 관계에서 파생되는 왜곡된 돌봄 노동

- 돌봄의 공공윤리 필요성. 돌봄 제공자에 대한 돌봄도 필요(사회윤리).
- 의존관계 자체가 비대칭적, 절대적 의존자는 돌봄을 되갚을 능력 결여.
- 모든 책임을 돌봄 제공자에게만 전가하게 되면 돌봄 관계는 희생과 헌신 위에서만 가능. But 지속 불가.
- 결국 돌봄 관계의 파괴 초래.
-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 역시 자신이 필요로 하는 돌봄을 다른 누군가로부터 받아야 함.
- 사회 전체 속에서 그리고 세대를 넘어 돌봄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의존망 필요(→돌리아의 원칙으로 연결).

돌봄 관계에서 파생되는 돌봄의 공공윤리 필요성

- 돌봄은 고되고 힘든 과정이지만 영적 실천의 존재 이유.
- 영적 실천이 구현해야 할 가치는 현실사회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실천하는 데 있음.
- 돌봄 제공자, 영적 실천가는 중립이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판단, 행동 할 수 밖에 없음(편향성을 가질 수 밖에 없음)
- 누구도 의존적 상황을 피할 수 없는 ‘의존의 보편성’(돌봄을 받아야 할 권리와 돌봄을 제공해야 할 책무의 보편성을 의미)이 현실.
- 돌봄을 받을 기회,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부담 역시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함. 영적 실천은 돌봄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옹호하는 역할 수행. **영적 실천 역시 누군가를 돌보는 일로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이 무너지지 않게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를 만들어가는 일이기도 함**

영적 실천의 존재이유

- 진정한 돌봄은 일종의 **헤테로토피아**.
- 현재 우리의 영적실천은 위기의 헤테로토피아와 일탈의 헤테로토피아의 경계에 존재.

* 미셸 푸코는 ‘현실화된 유토피아’를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로 명명.

헤테로토피아

참고문헌

- 공병혜, 이영의 (2009). 한국사회에서 노인 돌봄의 문화. 한국여성철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77-90
- 김건형 (2019). 가족, 사적 돌봄, 국가의 공모 그 이후. 실천문학, 137-153
- 김현 (2019). 가족 유물론, 돌봄 공동체. 인문과학 제117집. 119-154.
- 백영경 (2017). 복지와 커먼즈. 창작과비평, 45(3), 19-38
- 허라금 (2018). 관계적 돌봄의 철학. 사회와 철학(35), 67-90
- Joan C. Tronto. (2014). 『돌봄 민주주의: 시장, 평등, 정의』, 김희강, 나상원 역, 아포리아



출처: 김기찬 사진 선집